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5 Issue | Vol. 57

SPECIAL POINTS OF INTEREST

- 투자자들, 필리핀에 관심 있지만 안정적인 규정과 낮은 비용 요구 — 커니 — page 1-2
- 필리핀 2분기 외국인 투자 승인액 64% 급감, 670억 페소 — PSA — page 2-3
- 비상장 대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추진 — page 3-4
- BSP, 허위 문서 주의 당부 — page 4
- 노동 단체들, 14번째 월급제 지지... 임금 인상은 양보 불가 — page 5
- 역풍이 이중 생명줄 위협: 글로벌 경기 둔화 · 무역전쟁, 필리핀 외환 유입에 더 큰 타격 — 피치 산하 BMI — page 6-7
- 에너지부 장관, 폐기물 에너지화 법안 통과 촉구 — page 7-8

UPCOMING EVENT

- [Sept 25– Sept 26]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 page 8-9

투자자들, 필리핀에 관심 있지만 안정적인 규정과 낮은 비용 요구 — 커니

August 18, 2025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외국인 투자자들은 필리핀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고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불확실한 규제와 높은 에너지 및 물류 비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커니(Kearney) 임원들이 밝혔다.

커니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이자 일본 법인 대표인 세키나다 시게루(Shigeru Sekinada) 선임 파트너는 비즈니스월드(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제조업 운영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필리핀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 국가는 예측 가능한 규칙, 거버넌스, 법률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제조업 부문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고 세키나다 씨는 말했다.

“만약 투자자들이 공장에 투자하기로 결정한다면, 이 공장은 10년, 20년, 30년 동안 운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적인 예측 가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키나다 씨는 또한 기업 운영 비용을 낮추는 것이 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한 국가에 투자하기 전 물류와 에너지 비용을 살펴본다고 지적했다.

“만약 그 나라가 저렴한 에너지 비용과 저렴한 물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면, 해외 기업들은 필리핀을 제조업 부문에 있어 최적의 입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세키나다 씨는 필리핀이 제조업, 에너지, 소비재 및 소매, 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일본의 투자를 유치할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시아에서 일본 시장은 축소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필리핀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소비재와 소매 부문에서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세키나다 씨는 외국 기업들이 보호를 받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리핀이 보다 강력한 지적재산권(IP) 환경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일본 기업이 특정 국가에 진출하면, 현지 제조업체들이 거의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일본 제조업체들의 수익성이 최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본 기업들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철수하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커니의 2025년 해외직접투자(FDI) 신뢰지수 신흥시장 순위에서, 필리핀은 25개국 중 16위를 기록하며 세 계단 하락했다. 이 순위는 향후 3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치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

중국(홍콩 포함)이 신흥시장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필리핀은 태국(10위), 말레이시아(11위), 인도네시아(12위) 등 동남아 이웃 국가들에 뒤졌지만, 베트남(19위)보다는 앞섰다.

[Cont. page 2]



Buildings are seen in Quezon City in this file photo taken on May 27, 2024.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투자자들, 필리핀에 관심 있지만 안정적인 규정과 낮은 비용 요구 — 커니

[Cont. from page 1]

해당 지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두 가지 요인으로 법적·규제 절차의 효율성과 국내 경제 성과를 꼽았다.

커니의 선임 파트너이자 필리핀 대표인 마르코 데 라 로사(Marco de la Rosa)는 투자자들이 한 경제의 기술 및 혁신 수준, 자본의 유입·유출 용이성, 세율, 그리고 인프라 품질 또한 살펴본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 나라가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들과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느냐입니다.” 라고 데 라 로사 씨는 비즈니스월드(BusinessWorld)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훨씬 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다.

필리핀에는 이미 투자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효율화법(Republic Act No. 11032, Ease of Doing Business Act)」과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만, 데 라 로사 씨는 현행 법률의 더 나은 집행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리핀인으로서 제가 관찰한 것은, 우리에게선 올바른 법이 있지만 그 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여러 단계, 기업 조직, 공공 기관들이 얹혀 있지요. 어떻게 하면 모두가 법을 준수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보장할 수 있을까요?” 라고 그는 말했다.

또한 데 라 로사 씨는, 토지의 100% 외국인 소유 제한을 해제하지 않더라도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한다면 해외 직접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투자자가 자산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시장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통제권을 갖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다른 시장을 보더라도 100% 외국인 투자법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100% 외국인 소유를 허용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예측 가능하고, 집행 가능하며, 일관성이 있다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글로벌 불확실성

커니의 임원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국가들에게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는 위험이자 동시에 기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필리핀이 투자하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은 한정적이며, 우리는 이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라고 데 라 로사 씨는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필리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19%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은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데 라 로사 씨는 밝혔다.

“필리핀이 제조업에서 전혀 경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식품 등 여러 분야의 제조업체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집중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8/18/692120/investors-keen-on-phl-but-see-stable-rules-lower-costs-kearney/>

필리핀 2분기 외국인 투자 승인액 64% 급감, 670억 페소 — PSA

August 15, 2025 | Ruelle Castro | Malaya Business Insight

필리핀 통계청(PSA)은 목요일 보고에서, 2025년 2분기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FI)가 전년 동기 1,895억 페소에서 64.4% 감소해 673억8,000만 페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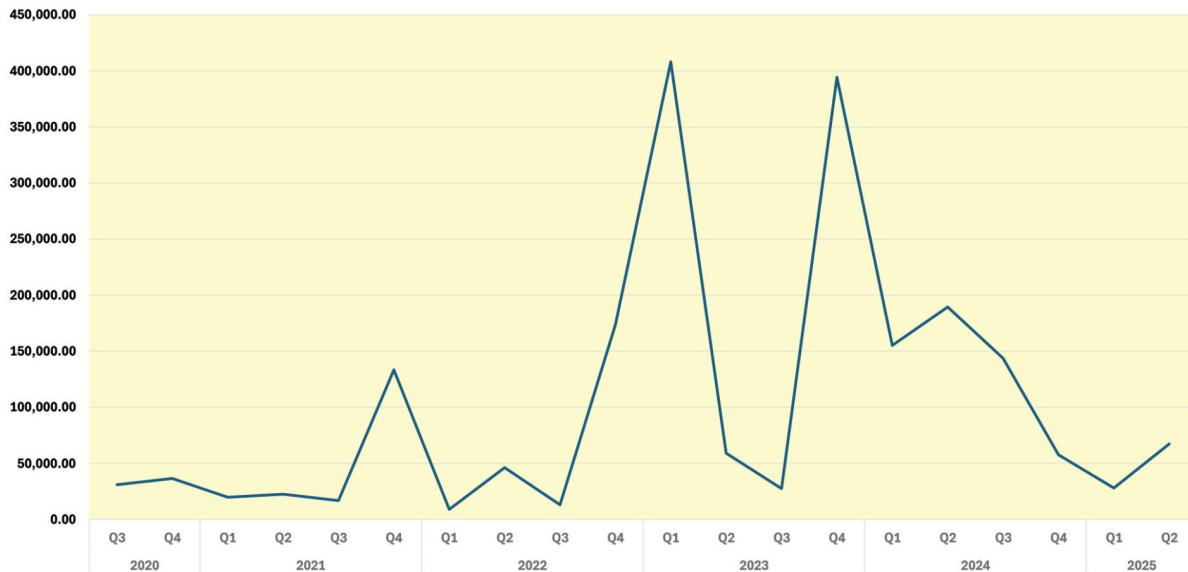
필리핀의 13개 투자진흥기관(IPA) 가운데 7곳이 국내 투자 신청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바탄자유항만청(AFAB), 투자위원회(BOI), 방사모로 투자위원회(BBOI), 클락 개발공사(CDC), 클락 국제공항공사(CIAC),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수빅만자유항만청(SBMA) 등이 포함된다.

[Cont. page 3]

필리핀 2분기 외국인 투자 승인액 64% 급감, 670억 페소 — PSA

[Cont. from page 2]



싱가포르는 전체 외국인 투자 승인액의 79.4%에 해당하는 534억8,000만 페소로 최대 투자국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39억6,000만 페소(5.9%), 네덜란드는 19억1,000만 페소(2.8%)를 기록했다.

산업별로는 전기·가스·증기 및 냉난방 공급업이 547억5,000만 페소를 유치했으며, 행정 및 지원 서비스업이 46억1,000만 페소, 제조업이 44억6,000만 페소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비콜(Bicol) 지역이 322억1,000만 페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CALABARZON이 213억9,000만 페소, 중부 루손(Central Luzon)이 40억5,000만 페소를 기록했다.

외국 및 국내 투자 승인

같은 기간 승인된 외국인 투자자와 필리핀 투자자의 총투자 규모는 2,990억8,000만 페소로, 전년 동기의 7,201억 페소 대비 58.5% 감소했다.

이 가운데 필리핀 투자자는 2,316억9,000만 페소를 투자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PSA는 이번 기간 승인된 총투자자가 약 38,234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예상된 26,981개 일자리보다 41.7%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ph-q2-foreign-investment-pledges-plunge-64-to-p67b-psa-2/>

비상장 대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추진

August 17, 2025 | Richmond Mercu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과 대규모 비상장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필리핀 회계기준(PFRS)을 적용하기 위한 초안 규정을 발표했다.

SEC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장려하고, 기업 공시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필리핀 자본시장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중점을 둔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ESG 요인을 포함한 비재무적 성과를 평가·관리하고, 동시에 글로벌 및 국가적 지속가능성 의제에 대한 기여를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Cont. page 4]

비상장 대기업 대상 지속가능성 보고 의무화 추진

[Cont. from page 3]



The SEC said the sustainability reporting guidelines would serve to encourage sustainable business practices and align company disclosur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o attract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focused investors in the Philippine capital market.

BusinessWorld / Image by Yibei Geng from Unsplash

이번 지침 초안의 발행은 7월 29일 열린 증권거래위원회(SEC)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P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PFRS S2 기후 관련 공시, 그리고 상장기업 및 대규모 비상장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채택이 승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상장기업만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되고 있다고 SEC는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지침 초안에 따르면, 증권규제법(SRC) 제17.2조의 보고 지침 적용을 받는 상장기업 및 대규모 비상장 기업은 연차보고서에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SRC 조항 적용을 받지 않는 대규모 비상장 기업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함께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해당 기업들이 2026 회계연도부터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PFRS S1과 S2 형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EC는 2025년까지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시 국제적으로 인정된 어떠한 기준도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보고서 제출이 단계적 방식(tiered approach)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ier 1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500억 페소 이상이거나 2025년 이후 신규 상장 시점 기준 동일한 규모를 가진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를 포함해 2027년부터 보고 의무가 시작된다.

Tier 2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이 30억 페소 초과 500억 페소 이하인 상장기업 또는 이후 동일한 규모로 신규 상장한 기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를 포함해 2028년부터 보고해야 한다.

Tier 3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이 30억 페소 이하인 상장기업 및 직전 회계연도 연간 매출이 150억 페소를 초과하는 대규모 비상장 기업이 포함된다. 이들은 2028년 1월 1일 이후 회계연도를 포함해 2029년부터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SEC는 PFRS 채택과 관련하여 공청회 과정에서 확인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환기 지원책(transition reliefs)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17/2465958/sustainability-reporting-large-non-listed-firms-sought>

BSP, 허위 문서 주의 당부

August 19, 2025 | Anna Leah Gonzales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화요일, BSP 또는 그 관계자가 발행한 것처럼 보이는 허위 문서가 유통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BSP는 권고문에서, 이러한 허위 문서에는 BSP 로고가 표시되어 있거나 위조된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수신자를 속이고 불법적으로 금전적 이익이나 개인 정보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BSP는 국민들에게 금융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소통이나 문서의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경계심을 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BSP는 전했다.



(File photo)

의심스러운 활동을 신고하려면 국민들은 (+632) 8811-1277 또는 8811-1BSP로 전화하거나, bspmail@bsp.gov.ph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56856>

노동 단체들, 14번째 월급제 지지...임금 인상은 양보 불가

August 19, 2025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노동단체들은 월요일 민간 부문 근로자들에게 14번째 월급을 제도화하려는 상원의 제안을 환영했지만, 이 조치가 입법을 통한 임금 인상이라는 보다 시급한 요구에서 관심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노동자연맹(FFW)은 이미 대통령령 제851호에 따라 의무화된 13번째 월급에 추가로 한 달치 급여를 더 지급하도록 하는 비센테 “티토” 소토 3세 상원 소수당 대표의 법안을 지지했다.

FFW 소니 마틀라 회장은 이번 제안을 “계속되는 생활비 상승에 대한 오래도록 미뤄져 온 대응”이라고 평가하며, “민간과 공공 부문의 모든 노동자가 이 개혁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13번째 월급은 가정의 학비 지출을 돕기 위해 매년 6월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 14번째 월급은 연말과 휴일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 24일까지 지급해야 한다.

법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아닌 일반 직원, 가사도우미법(Kasambahay Law) 하에 고용된 가사노동자, 그리고 연간 최소 한 달 이상 근무한 13번째 월급 수혜 자격이 있는 근로자들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수익이 급감한 비영리 기관, 이미 14번째 월급이나 그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고용주는 면제된다.

소토 의원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우리 경제에 똑같이 중요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틀라 회장은 국회의원들에게 면제가 1년만 유효하고, 지속적인 경영상 어려움이 증명될 경우에만 갱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렇게 해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과도하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면제 제도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금 인상 추진

이 조치를 지지하면서도 마틀라는 일일 200페소의 전면적 임금 인상 캠페인이 여전히 “긴급하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13월 및 14월 급여와 같은 보너스는 단기적인 구제책이 될 수 있지만, 헌법상 보장된 생계임금에 대한 권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진보노동자센터(Sentro) 사무총장 조슈아 마타도 같은 우려를 표했다.

마타는 제안된 14월 급여는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의미 있는 임금 인상과 병행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소토 상원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14월 급여를 입법화해 강제로 시행한다면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환영할 만한 구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이고 입법화된 최저임금 인상이 동반될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타는 추가 지급이 학비 납부 시기나 연휴 기간 동안 가계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구매력의 장기적인 감소를 상쇄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 법안은 2025년 6월 11일 상·하원이 폐회하기 전에 양측의 법안을 조정하기 위한 양원 합동위원회 구성이 무산되면서 제19대 의회에서 폐기됐다.

상·하원 모두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전국적 임금 인상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는데, 하원은 2025년 6월 초 200페소 인상을, 상원은 2024년 2월 100페소 인상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5/08/19/labor-groups-back-14th-mo-but-wage-hike-non-negotiable/>

역풍이 이중 생명줄 위협: 글로벌 경기 둔화 · 무역전쟁, 필리핀 외환 유입에 더 큰 타격 — 피치 산하 BMI

August 19, 2025 | Justine Xyrah Garcia | Malaya Business Insight

말라야 비즈니스 뉴스팀

필리핀의 두 가지 주요 외화 원천인 수출과 송금이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장벽 강화로 인해 점점 더 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BMI 국가위험 및 산업연구가 월요일 밝혔다.

피치 솔루션의 연구 부문은 무역 단절과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해 필리핀의 대외수지가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향후 3년간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2.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팬데믹 이전의 0.4% 적자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BMI는 “무역 단절과 그로 인한 글로벌 수요 위축이 필리핀 수출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며, 필리핀의 두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의 성장 둔화가 핵심 우려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Weak Global Demand Will Weigh On Services Exports

Philippines - Global Growth & Services Exports, % chg y-o-y



e/f = BMI estimate/forecast. Source: Haver, BMI

미국의 GDP는 2024년 2.8%에서 올해 1.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성장률은 부동산 부문 침체 속에 2026년까지 4.2%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또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입장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높은 관세가 세계 무역 흐름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BMI는 필리핀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부문에서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 아웃소싱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지만, 이러한 유입만으로는 무역 및 서비스 활동의 약세를 상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경고, 이미 현장에서 체감

Reyes Tacandong & Co.의 수석 고문인 조너선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이번 경고가 이미 현장에서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네, 필리핀 수출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세안(ASEAN) 제품, 우리 제품을 포함해 미국이 부과한 19% 관세는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라고 라벨라스는 밝혔다.

그는 “수출업체들은 이미 올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이유로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갈등을 꼽고 있다” 고 강조했다.

송금에 대해서는, 라벨라스는 올해 성장률이 2024년의 3%에서 2.8%로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이민 단속 강화와 송금세 신설 논의가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 대부분은 영주권자이지만, 작은 정책 변화라도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라벨라스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실질적인 위험”이라며, “우리는 시장을 다변화하고, 내수를 강화하며, 수출업체와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s)를 위한 스마트하고 목표 지향적인 정책을 지원해야 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행동이 핵심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BMI의 보고서도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며,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송출국의 성장 둔화로 인해 송금 규모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리핀의 상품 무역수지 적자는 2025년 743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905억 달러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Cont. page 7]

역풍이 이중 생명줄 위협: 글로벌 경기 둔화 · 무역전쟁, 필리핀 외환 유입에 더 큰 타격 — 피치 산하 BMI

[Cont. from page 6]

적자 확대

이로 인해 전체 경상수지 적자는 서비스 수지와 송금 유입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더라도 2026년까지 GDP의 약 3%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자체 전망에서 국제수지가 2025년에는 GDP의 1.3% 적자(63억 달러), 2026년에는 GDP의 0.5% 적자(2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BSP는 국내의 안정적인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구조 개혁이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요인들이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 고조된 지정학적 위험, 투자자 신뢰 약화로 상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역과 투자 흐름이 둔화됨에 따라 필리핀이 외환보유액을 축적할 수 있는 여력도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With additional report from Ruelle Castro)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headwinds-threaten-twin-lifelines-global-slowdown-trade-war-to-hit-ph-forex-inflows-harder-fits-bmi/>

에너지부 장관, 폐기물 에너지화 법안 통과 촉구

August 19, 2025 | Brix Lelis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필리핀의 만성적인 홍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샤론 가린 에너지부 장관은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WTE, Waste-to-Energy)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가린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이 법을 추진해 왔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지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폐기물-에너지 전환법이 마침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하원에서 제19대 의회 기간 중 WTE 법안이 이미 승인되었으나 상원에서 진전을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덧붙였다.

그녀는 “원 가차알리안 상원의원과 피아 카에타노 상원의원의 지지를 통해 WTE 법안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에타노와 가차알리안은 현재 상원 에너지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맡고 있다.

지난달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지방에서 잇따른 태풍과 강화된 계절풍 비로 인해 심각한 홍수가 발생하면서, 국가적으로 심화되는 폐기물 위기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가린 장관에 따르면, WTE 법안은 지방정부 단위를 클러스터화하여 일관된 폐기물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폐기물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녀는 “WTE의 중요한 점은 에너지 활동이라기보다 환경 활동에 가깝다는 것이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폐기물을 활용해 에너지로 전환함으로써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WTE 기술의 도입은 2008년 제정된 「재생에너지법(공화국법 9513호)」에 의해 의무화되어 있다.

법에 정의된 WTE 기술은 동물 분뇨나 농업 폐기물과 같은 생분해성 물질을 “혐기성 소화, 발효, 가스화 등”을 통해 활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다만, 이 같은 에너지 전환은 「1999년 청정대기법」과 「2000년 생태고형폐기물관리법」의 규정과 취지에 엄격히 부합해야 한다.

에너지부(DOE)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WTE 프로젝트를 위한 바이오매스 계약은 총 13건이 체결되었으나, 실제 가동 중인 것은 6건에 불과하다.

에너지부는 WTE 법을 통해 더 많은 WTE 기술 투자를 유치하고, 올해 말 예정된 녹색 에너지 경매를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 [Cont. page 8]

에너지부 장관, 폐기물 에너지화 법안 통과 촉구

[Cont. from page 5]

최근 ATD 웨이스트투에너지(ATD Waste-to-Energy) 코퍼레이션은 뉴클락시티(New Clark City)에 대규모 폐기물-에너지(WTE)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40억 페소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회사는 인도의 엔지니어링 기업 우탐에너지(Uttamenergy Ltd.)와 글로벌 헤비 이큅먼트 앤드 컨스트럭션(Global Heavy Equipment and Construction Corp.)과 협력하여 타를락 주 카파스(Capas)에 위치한 4헥타르 부지에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ATD 웨이스트투에너지의 사장 겸 CEO인 아만도 디아즈(Amando Diaz)는 “이 시설은 단순한 발전소 그 이상으로,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이라는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 획기적인 해결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8/19/2466420/doe-chief-seeks-passage-waste-energy-bill>

[다가오는 행사] 아랑카다 필리핀 투자 포럼 2025



2012년부터 *아랑카다 필리핀 포럼(Arangkada Philippines Forum)*은 필리핀의 투자, 경제 개혁 및 포용적 성장에 관한 고위급 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올해 연례 포럼은 **2025년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파사이 시 마리오트 그랜드 볼룸(Marriott Grand Ballroom)**에서 개최되며, 정부, 민간 부문, 학계 및 언론의 저명한 리더 수백 명이 모여 투자 유치 및 유지 전략과 기업 성장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럼은 **JFC(합동 외국상공회의소)**가 선정한 7대 ‘성장 유망’ 부문인 ▲농기업(agribusiness), ▲인프라, ▲제조 및 물류, ▲관광, ▲핵심 광물, ▲창의산업, ▲정보기술 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포럼 첫날에는 정부 및 기업의 주요 인사들의 연설과 7개 부문별 분과 세션이 진행되며,

둘째 날에는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B2G)의 독점적인 네트워킹 기회, 부스 전시를 통한 실시간 제품 및 비즈니스 시연, 그리고 정부 서비스 및 투자 관련 주제에 대한 심층 산업 토론회가 마련됩니다.

자세한 정보 및 스폰서십 문의는 아랑카다 필리핀 웹사이트의 [브리퍼(Briefer)], [후원 등급(Sponsorship Tier)], [확인서(Confirmation Form)]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KCCP 사무국(전화: (632) 8885-73-42 / 이메일: info@kccp.ph)**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

[BRIEFER] <https://drive.google.com/file/d/1H4eAL1QQNvfXsRkLFk7nZ-XeptMF3YNK/view>

[SPONSORSHIP] https://drive.google.com/file/d/1v5Kbk5-iaHTLV_WqTbnF5Q1k_Dv78u2/view

[CONFIRMATION]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Xuqm9Xp--Ad4SWHdowgcrc_OGtu0y-PZCQvnwSbvt2Xuraw/viewform



ARANGKADA PHILIPPINES INVESTMENT FORUM 2025

SEPTEMBER 25-26, 2025 | MARRIOTT GRAND BALLROOM



HON. FREDERICK GO

SECRETARY
OFFICE OF THE SPECIAL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INVESTMENT AND
ECONOMIC AFFAIRS



DR. ENRICO PARINGIT

EXECUTIVE DIRECTOR
PHILIPPINE COUNCIL FOR INDUSTRY, ENERGY
AND EMERGING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HON. ERNESTO PEREZ

SECRETARY
ANTI-RED TAPE AUTHORITY



GONZALO VARELA

LEAD ECONOMIST AND PROGRAM LEADER
WORLD BANK

VISIT WWW.ARANGKADAPHILIPPINES.COM/FORUM2025 TO LEARN MORE
AND REGISTER NOW!

SPONSORS

PLATINUM



GOLD



SILVER



BRONZE



SECTORAL



EVENT PARTNERS



MEDIA PARTNERS



www.arangkadaphilippines.com



/Arangkada Philippines



/arangkadaphilippines



/ArangkadaPH



/Arangkada Philippines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BDO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합니다

bdo.com.ph

We find ways[®]

BDO Unibank is regulated by the Bangko Sentral ng Pilipinas. <https://www.bsp.gov.ph>
For concerns, please visit any BDO branch near you or reach us thru any of the channels listed on our website: <https://www.bdo.com.ph/consumer-assistance>.
Deposits are insured by PDIC up to P500,000 per depositor. The BDO, BDO Unibank & other BDO-related trademarks are owned by BDO Unibank, Inc. All Rights Reserved.